

한국잔디연구소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7-3 한국골프회관4층/전화 031-781-6440/전송 031-781-6443

문서번호	연구2020 - 124호	선 결		지 시	
시행일자	2020. 5. 14.		일자 시간		
수 신	회원사 대표이사	접 수	번호	결 재 · 공 람	
참 조	코스관리부서장				

제 목 : 「봄철 새포아플 대발생과 관리대책」 발송 공문 내용 수정 알림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연구소에서 발송한(2020. 05. 07) 「봄철 새포아플 대발생과 관리대책(연구 2020-121호)」 공문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오기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수정내용

- 발송공문 내용에서 “한지형잔디 내 새포아플 방제약제” 중 토양처리제 pyroxasulfone(터프너스) 약제 품목을 삭제함

나. 수정이유

- Pyroxasulfone(터프너스) 약제는 한국잔디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약제로 한지형잔디에 사용 시 약해가 발생될 수 있음

사단
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
한국잔디연구소



봄철 새포아풀 대발생 원인과 관리대책

1 새포아풀의 대발생 원인

- 최근 새포아풀이 전국적으로 대발생하면서 봄철 코스관리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- 이는 지난해 가을철부터 지속된 이상기온현상이 올해 봄철까지 이어지면서 새포아풀의 발아와 월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됨
- 지난해 가을철(9월과 10월)에는 잦은 강우와 함께 평균최저기온은 8~15 °C, 평균 최고기온은 20~25 °C를 유지하여 새포아풀 발아에 호조건을 제공하였으며, 이후 올해 1월, 2월의 평균기온도 영상 1.0 °C 이상으로 매우 포근하였고, 3월과 4월에는 이상저온현상이 발생하여 새포아풀의 발아와 월동에 호조건을 유지함으로써 봄철 발생이 극대화한 것으로 판단됨
- 특히 새포아풀은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큰 조건(밤/낮의 기온이 7~18°C/18~29°C)에서 종자 발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, 금년 봄 일교차가 큰 기후조건과 잦은 강우 혹은 집중 관수 지역을 중심으로 새포아풀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
- 또한 가을철에 발생한 새포아풀은 겨울철 추위로 많은 개체가 고사하는데, 금년 겨울철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월동 개체의 생존율이 높았고, 생존 개체가 큰 포기로 성장하여 화서형성 증가 및 약제방제가 어려워지게 됨

2 새포아풀 방제 대책

▣ 경종적 방제

- 종자 확산 방지를 위해 예지물 제거
 - 지금 시기는 대부분 새포아풀이 개화·결실중에 있어, 결실된 종자가 토양에 떨어지지 않도록 잔디 깎기 작업 시 갱모아에 바스켓을 장착하거나 스위퍼작업으로 예지물을 수거하도록 함
 - 가급적 예고를 낮추어 종자결실은 줄이고, 새포아풀 혼입에 따른 불균일성을 줄임

○ 시비관리

- 새포아풀이 한국잔디에 비하여 봄철 생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새포아풀이 다 발생한 경우에는 비료 살포를 충분히 늦춰서 실시함
- 또한 새포아풀은 인산질 비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과다한 인산질 비료 살포는 지양
- 인산질 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새포아풀 개화·결실 이후에 살포함

○ 잔디밀도 향상

- 잔디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새포아풀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잔디 밀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함
- 특히, 새포아풀 종자가 발아하는 봄(3~4월)과 가을철(9~10월)에 잔디밀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함

■ 화학적 방제(약제방제)

○ 약제방제 체계

- 제초제를 살포하여 방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
- 새포아풀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처리와 경엽처리를 병행해야 함
- 새포아풀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토양처리제를 살포하여 발생 개체 중의 약 80% 이상을 방제하고, 이후 발생한 개체를 대상으로 경엽처리제를 살포하여 방제함
- 토양처리제는 새포아풀 종자가 발아하기 이전인 봄철(2월~3월)과 가을철(9월~10월)에 살포하고, 이후 발아한 개체들은 경엽처리제를 부분 살포하여 방제함

○ 한국잔디 내 새포아풀 방제

- 지금은 이미 새포아풀 종자가 출수하여 결실 중에 있기 때문에 약제 방제 효과는 높지 않음
- 따라서 잔디 깎기 작업 시 예지물을 수거하고, 추가로 발생하는 새포아풀을 대상으로 경엽처리제를 살포하여 방제함
- 토양처리제 : Prodiamine, Flupoxam, Dithiopyr 등
- 경엽처리제 : Trifloxysulfuron, Foramsulfuron, Asulam, Rimsulfuron 등

○ 한지형잔디 내 새포아풀 방제

- 한지형잔디(켄터키블루그래스, 벤틀그래스)로 조성된 지역에 발생된 새포아풀은 선택적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제가 어려움
- 따라서 한지형잔디의 경우에는 토양처리제 살포가 매우 중요함
- 새포아풀이 문제가 되는 골프장의 경우에는 새포아풀 종자 발아 전에 토양처리제를 살포하고, 이후 발생하는 새포아풀은 경엽처리제로 방제함
- 토양처리제 : Prodiamine, Dithiopyr, Benfluralin, Pyributicarb 등
- 경엽처리제 : Methiozolin

○ 주의 사항

- 제초제는 새포아풀뿐만 아니라 잔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디 새 뿌리가 발근하기 전에는 잔디 뿌리에 피해가 적은 약제 선정이 필요함
- 새포아풀이 다발생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년간 체계적인 방제 계획이 필요함
- 새포아풀 방제가 90% 이상 이루어졌을지라도 토양 중에서는 많은 새포아풀 종자가 잔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방제를 지속해야 함
- 고농도의 약제 살포는 약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농약사용지침서에 따른 권장사용량을 준수해야 함